

美, 남북협력 연일 지지...北 안보리 비난엔 “제재 이행 필요”

“적대적 의도 없고 조건없이 만날 의향” 거듭 언급 한반도 긴장 완화 북미대화 재개에 긍정 영향 기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일 남북 협력 가능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대해선 대북 제재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에 대해 북한이 입장을 낸 것에 관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걸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와 모든 기존 유엔 제재

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역내 및 국제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불법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한국시간 3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에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남북 통신 연락선 북

원으로 기대가 커지는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남북 통신선 연결에 대한 질문에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며 우리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으며 미국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사키 대변인 역시 “우리는 남북 간 대화와 관여 및 협력을 계속해서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고, 북한과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북한이 우리의 접근에 긍정적으로 응하길 바라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했다. 국무부는 전날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직후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 간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그것이 한반도에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

요한 요소라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절제된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살얼음 같은 한반도 정세를 조심스레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북미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보리를 소집할 정도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통신 연락선 복원에서 보듯 한반도 긴장 완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를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눈물 화가’ 그라나토, 자기 그림 폭파 디지털작품만 남기려고 실물 없애

아르헨티나 화가가 자신의 그림들을 스스로 폭파했다. 디지털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화가 레안드로 그라나토는 자체 제작한 폭박 장치로 그림 5점을 터뜨렸다. 그라나토는 ‘눈물 화가’로 잘 알려진 유명 작가다. 코로 물감을 흡입한 후 눈물로 배출해 그리는 독특한 화법으로 주목받았다. 전 세계에 작품을 판매해 온 그가 글자 그대로 눈물로 그린 소중한 작품들을 파괴한 이유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로만 남겨두기 위한 것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원본 여부나 소유권 등의 고유 정보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에 폭파한 그림 5점은 7만 달러(약 3천300만원) 상당이라고 그라나토는 밝혔다. 원본이 파괴됐으니 디지털 세상에서만 남게 됐다. /연합뉴스



해안에 형성되는 화산 삼각주 북아프리카 서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섬의 화산에서 분출된 거대한 용암이 대서양으로 흘러들면서 해안에 삼각주 지형이 새로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폭발을 시작한 라팔마섬 화산은 2주일째 시뻘건 용암과 연기를 내뿜으며 지금까지 주택 400여 채가 파손되고 7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진은 4일(현지시간) 스페인 해양연구소 관측선에서 촬영한 영상. /AFP·연합뉴스

사우디 ‘부의 상징’ 치타, 밀수에 씨 마른다

마리당 800만원, 새끼·암컷 더 고가 이에 따르면 2010~2019년 불법 밀수된 치타 3천600마리의 60%가 사우디로 넘어갔다. 치타 가격은 통상 5천 파운드(약 800만원) 정도로, 새끼나 암컷이 최고가에 팔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생 치타의 개체 수는 20세기 초 약 10만 마리에서 최근 7천 마리까지 줄었다. 이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치타를 멸종위기종 목록에 올렸으며 국제적으로 사고파는 것은 금지됐다. /연합뉴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남동부 벨루 오리존치시 행사에서 중무장 경찰이 입은 전투복을 분둔 유니폼을 입고 장난감 총을 든 어린 소녀를 목에 태우고 있다.

중국, 나흘연속 대만에 무력시위...“독립은 죽음의 길”

중 군용기 52대 진입...외교부 대변인 “대만 독립 도모 분쇄할 것”

중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7일)에 나흘 연속 대만을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 무력시위를 벌였다. 5일 환구망(環球網)과 인민망(人民網) 등 중국 매체는 대만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발표 등을 인용해 전날 중국 군용기 총 56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매체는 당초 젠(譚·J)-16 전투기 34대를 비롯해 수호이(蘇·SU)-30 전투기 2대, 윈(運·Y)-8 대잠초계기 2대, 쿵징(KJ)-500 조기경보기 2대, 흥(轟·H)-6 폭격기 12대 등 군용기 52대가 대만 ADIZ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젠-16 전투기 4대가 추가로 진입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무력시위는 대만 국방부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ADIZ 진입 등 중국군의 대만 주변 활동을 공개하기 시작한 작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 1일 38대, 2일 39대, 3일 16대의 중국군 군용기가 대만 ADIZ를 진입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논평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연합공보(미중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도발은 중미 관계를 해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독립을 꾸미는 것은 죽음의 길로, 중국은 모든 조치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 도모도 분쇄할 것”이라며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겠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화 대변인은 “미국의 논평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연합공보(미중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도발은 중미 관계를 해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독립을 꾸미는 것은 죽음의 길로, 중국은 모든 조치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 도모도 분쇄할 것”이라며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겠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어린소녀 전투복 입고 장난감 총 들게 해 인권단체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아동 인권침해” UN 고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아동 인권 침해 행위로 유엔에 고발됐다. 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의 80여 개 인권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인권운동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어린이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극우 성향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남동부 벨루 오리존치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어린 소녀에게 중무장 경찰이 입은 전투복을 분둔 유니폼을 입고 장난감 총을 들게 했다. 이는 자신의 지지 기반 가운데 하나인 경찰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일반인의 총기 소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강조한 행위로 보인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전에도 지지자 집회에서 전투복을 입거나 장난감 총을 든 어린이를 자주 등장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연합뉴스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